

우리들 이야기



침례의 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아서 정말 기뻐요. 제가 계속 깨끗하게 지내고 계명에 순종한다면 성신은 저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가 참되고 물몬경이 참됨을 알아요.
후안 오, 8세, 콜롬비아 칼리



이레안툼 디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사랑해요” 및 베를란 티의 “저는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필리핀 루손섬



“주님의 선교사들”, 에밀리오 에이, 9세, 아르헨티나 포르모사



모든 생일이 특별하긴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침례식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침례를 받고 나니 정말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시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대나 엠, 9세,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